

이청준 소설의 글쓰기 양상에 대한 일고찰

-소설형식을 통해 살핀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은경*

1. 서론

대부분의 이청준 소설은 플롯의 시작이 곧 스토리 시간의 끝인 방식으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서사진행은 ‘어떤 인물이 있고, 그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인물에 초점을 두고서 서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청준의 대다수 작품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즉 사건이 선재(先在)하고 이를 인칭화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여기에서 ‘사건이 선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을 주목한다면, 물론 회상을 통해 전개되는 소설 역시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청준의 소설에서 ‘사건의 선재’함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이를 자신의 독특한 소설기법을 위한 장치로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청준이 ‘기법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따라서 그의 소설을 연구하는 다수의 논자들이 작품의 형식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시켜 온 것은 모두 이에 기인한 바 크다.¹⁾ 특히 대부분 ‘액자구조’[중층구조]를 취하고 있는 이청준

* 박사과정 수료(충북대 강사)

- 1) 김윤식, 「심정의 넓힘과 심정의 좁힘—이청준론」,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조남현, 「문체적 인물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문학사상』 142호, 1984.
권택영,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 『외국문학』 10호, 1986.
마희정, 「李清俊 小說의 探索構造 研究」,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95.
김영성, 「이청준 초기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99.

의 중·단편소설들은 다수 논자들에 의해 그 형식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기존 논자들에 의해 충분히 거론된 바 있는 이청준 소설의 기법적 특질 자체를 논의하는 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청준의 장편소설²⁾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의 소설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건의 선재(先在)함’이라는 특성을 이청준의 ‘작가로서의’ 문제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어 문제와 결부하여 살필 것이다. 이청준은 ‘기법을 중요시하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청준이 이와 같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언어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한다는 사실과 유관하다. 언어가 작품창작의 기본항이라는 것은 모든 작가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이청준의 경우, 그의 상당수 작품들에서 언어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자체가 작품의 중심 제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가운데는 작가가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의 소설 창작 행위 자체가 작품의 골격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만큼 그의 작품을 언어[말]의 문제와 결부하여 논의한 연구성과가 상당수 발견된다.³⁾ 본고는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이와 같은 언어에 대한 천착

김준우, 「이청준 소설의 비판적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 2) 연구사 검토결과 이청준의 장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태동, 「역사적 현실과 작가의 비전: 이청준의 근작, ‘人間人’의 세계」, 『문예중앙』 19, 1992/ 신정현, 「단핍에서 열림으로: 이청준의 ‘흰옷’에 나타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결함과 열림의 미학」, 『문예중앙』 17-1, 1994/ 이현나,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연구: 주체분열의 담론구조를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논문, 1997/ 류양선, 「낙원의 꿈과 관념의 정치학: 이청준의 ‘당신들의 天國’론」, 『가톨릭대성서어문연구』 20·21, 1999.
- 3) 이청준의 문학에 관한 기존논의 가운데는 권력/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담론구조, 주체구현양상, 말(언어) 등과 결부하여 거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다. 특히 사회적 권력(폭력)의 문제를 언어와 관련하여 논의한 선행 연구로 김치수, 임순영의 논의가 주목된다. 김치수는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란 부제가 붙은 작품뿐만 아니라, <빈 방>, <소문의 벽> 등 이청준의 상당수 작품들이 사회적 폭력에 의해 상실된 말의 자유 찾기 즉, 드러난 현실의 이면에 감추어진 상처들의 탐구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순영은 후기구조주의적 언어관에 비추어 이청준 소설에서의 ‘말’은 권력에 의해 왜곡된 ‘땡 빈’ 말들이며, 소리가 바로 ‘땡 빈’ 말들이 안착할 존재의 집이라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권택영 역시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를 논의한 논문의 결말부에서 이청준 소설에서의 말의 탐구가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자각, 공허한 말에

이 작가로서의 이청준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접면을 이룬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청준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건의 선재’함이 기법적 차원에서의 특징을 이룸과 동시에 언어와 세계의 관련 양상에 대한 이청준의 중요한 문제 제기인 것으로 보고, 이를 논의의 단초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글쓰기를 통한 현실 재현 문제에 대한 작가의식의 일면을 밝히도록 하겠다.

주지하듯이, 소쉬르가 근대 언어학을 창시한 이래, 언어학은 다양한 학제적 담론들을 생산하며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특히 ‘언어가 과연 세계를 재현(re-présentation)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언어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⁴⁾ 들뢰즈 역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펼친 대표적 철학자이다. 들뢰즈의 많은 철학적 저술들을 관통하는 사상을 ‘차이의 철학’이라 짧게 압축하여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성 사유에 기초한 기존의 철학을 전복하기 위한 시도이며, 그 결과로서 들뢰즈의 철학은 비-재현주의 혹은 반-모방주의의 특성을 갖는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개진한 언어철학의 비-재현주의적 특성은 그들이 소쉬르가 양분한 기표와 기의의 도식 대신에, 표현 국면과 내용 국면을 구별하여 표현과 내용의 양 국면이 각각의 형식과 실체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된다.⁵⁾

다시 의미를 불어넣으려는 의미의 시도인 것으로 논평하고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된다. 김지수, 「언어와 현실의 갈등」,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권택영,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 『외국문학』, 1986/ 임순영,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말(言)’의 인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98/ 김준우, 「이청준 소설의 비판적 담론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박희일, 「이청준 소설의 주체 구현 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4) 현대철학에서 표상(재현)에 대한 비판을 매개로 하는 사유가 다양한 방향에서 전개된다. 대표적인 철학자로, 하이데거, 들뢰즈, 레비나스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비-재현적 기호학을 자신의 철학의 중요한 주제로 삼고,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영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들뢰즈의 논의에 기대어 이청준 문학을 살필 것이다. R. Bogue, *Word, Image and Sound-The non-representational semiotics of Gilles Deleuze, DELEUZE AND GUATTARI vol. I*, ed. by G. Genosko, Routledge, pp.81~82/ 서동욱, 『차이와 반복』, 문학과지성사, 2000, 9~10면.
- 5) 들뢰즈와 가타리는 모든 현실을 기호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보편적 기호학을 거부한다. 그들은 기호를 인간 영역 너머로 확장, 내용-표현 관계에 관한 세 가지의 기본 모델을 구성하는데, ①물리-화학적 성층, ②유기적 성층, ③인류적 성층이 이에 해당

들뢰즈와 가타리는 표현 국면과 내용 국면이 각각 형성되는 방식과 그러한 국면들을 상호 관련짓는 힘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에 따르면, ‘내용국면’은 사회적 권력 구성체를 이루는 기술적-사회적 기계이며, ‘표현국면’은 언어에 앞서서 존재하면서 기호체제를 이루는 기호적-집단적 체제이다. 그런데 내용국면과 표현국면은 각각 도구[손]와 언어[얼굴]라고 하는 그 고유한 형식을 갖는다. 권력 구성체와 기호체제는 그 고유한 형식으로서의 도구와 언어를 사용하도록, 그것들 상호간 또는 각각을 소통·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조직화하는 역할을 한다.⁶⁾ 이처럼 내용국면과 표현국면은 각각 그 고유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양 국면 사이에는 어떤 대응관계도 일치관계도 없으며 다만 상호 동형성을 전제할 뿐이다.⁷⁾ 내용국면과 표현국

한다. 언어는 이중 인류적 성층에 해당한다. 그들은 기의-기표의 양분이 이미 신용을 잃어버린 개념들이라고 비판하면서, 엘름슬레우의 철학이 언어학과는 다른 범위, 다른 기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그의 질료·내용과 표현·형식과 실체라고 하는 개념들을 원용한다. 여기에서 <질료>는 원자 아래의 입자들, 순수한 강렬함들, 물리학과 생물학의 대상이 되기 이전의 일관성의 평면 혹은 “기관없는 신체”들을 의미하는데, 이를 <추상적인 기계들>이라고 명한다. 형식화되지 않은 질료들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기계들>로부터 <구체적인 기계들>이 펼쳐진다. 즉, 무정형적적인 일관성의 평면으로부터 <표현>과 <내용>이 각자의 <형식> 및 그에 상응하는 <실체>를 지니고서 현실화된다. 본고는 ③인류적 성층(언어 포함)이 내용과 표현의 양 국면으로 조직화되는 양상에 대한 논의에 기댈 것이다. G. Deleuze & P. Guattari,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85~93면/ R. Bogue, 이정우 역, 『들뢰즈와 가타리』, 새길, 1995, 212면.

6) 인류적 지층에서 내용과 표현의 조직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들에 따르면, <내용>과 <표현>은 각각 고유한 형식을 가지고 조직화된다. <내용>은 “도구-손이라는 극 또는 사물의 학습”이라는 나름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대립한다. <표현> 역시 “언어-얼굴이라는 극 또는 기호의 학습”이라는 나름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 대립하기보다는 <내용>에 대립한다. 도구-손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기술적 내용은 <사회적 기계>와 권력구성체와 결부되어 있으며, 언어-안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상징적 표현은 <기호적 기계>와 기호체제에 결부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호체제는 권력조직들을 표현하는 것이지, 내용의 표현이라고 가정되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 그리고 권력조직은 국가 기구 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곳에서 내용과 표현의 절편들을 교차시키고 내용과 표현을 형식화한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126~127, 136, 167~168면.

7) 내용의 국면과 표현의 국면을 독립적으로 사유한 들뢰즈의 언어철학은 최초로 우주를 ‘물체적인 것(somata)’과 ‘비물체적인 것(asomata)’으로 구분하여 사유한 스토아 학

면의 상호독립성을 바탕으로 들뢰즈의 비-재현적 기호학이 논의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비-재현적 언어관에 기대어 이청준이 자신의 작품활동을 통해 글쓰기 자체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청준 소설의 중요한 특질로서 지적되는 '사건의 선재'함은 본고 논의의 단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주어부(주체)와 서술부(사건)를 동시에적으로 직조해 나가는 형상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본고가 논의 대상으로 하는 이청준 소설들은 모두 서술부(사건)를 전제한 후 그로부터 출발, 주어부(주체)를 찾아나가는 서사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곧 작품의 내용 국면으로서 선재(先在)하는 사건과 언어를 통해 그것을 진술하는 표현국면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청준 소설의 형식적 독창성을 이룸과 동시에 보다 중요하게는, 들뢰즈의 비-재현적 기호론을 원용하여 작품의 내용국면과 표현국면, 그리고 양자의 관계를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될 본고의 방법적 타당성을 작품 자체가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된다. 이청준 소설에서의 '사건의 선재'함은 작품의 '중층구조'를 낳는 직접적인 계기이면서, 또한 작가가 "과연 선재(先在)하는 사건을 '나타남(présentation)' 자체로서 재현(re-présentation)해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청준의 보다 심오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⁸⁾ 본고는 '사건의 선재'이란 이청준 소설의 특질에서 도출되는 후자의 문제의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그 해답에 이르는 과정을 작품의 서사화 방식, 등

파의 학설에 영향받은 바 크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몸체이다. 각각의 몸체는, 성장하는 식물처럼, 그것을 그 완전한 형태로 이끌어 주는 내적인 힘을 지닌 역동적인 실체이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는 이러한 '몸체적인 것들'의 표면효과(surface effect)로서 '비몸체적인 것들'의 '향존' 내지 '존속'을 발견한다.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예를 들어 포도주의 방울이 물에 떨어질 때에는 몸체들의 혼합이 있다. 하지만 "불이 붙어진다"라는 언표는 이와는 본성상 다른 <비몸체적 변형>을 표현한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168면/ G. Deleuze,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48~61면/ R. Bogue, 『들뢰즈와 가타리』, 앞의 책, 1995, 112~114면.

- 8) 들뢰즈에게서 표상(재현, re-présentation)이란 단어에서 접두사 'RE-'는, 차이를 종속시키는 동일적인 것의 개념적 형식을 의미한다. '나타남(présentation)'이란 직접적 있음이다. 접두사 RE는 이 직접적 있음, '다시re' 스스로를 통해 매개하여 있게 하는 의식의 활동이다. 서동욱, 『차이와 반복』, 앞의 책, 10면.

장인물의 담론 및 존재방식 등을 통하여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언어와 세계,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규명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비-재현적 언어관에 바탕한 이청준의 독특한 글쓰기의 원리를 밝히도록 하겠다.

2. '사건의 인칭화'를 통한 가능태로서의 세계 재현

본고의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작품은 이청준의 장편소설이다. 그런데 특별히 단편 <假睡>와 <매잡이>가 본고의 논의방향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판단되기에, 이들 두 작품을 본고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⁹⁾ 이들 작품들은 모두 '사건의 선재(先在)'함을 기법적 장치로 한다. 이청준은 '선재하는 사건'이 말[언어]을 통해 서사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펼쳐 보임으로써 '선재하는 사건'을 그 자체로서 재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사적 상황은 내용-표현의 상호독립성이라는 전제하에, 비-재현적 언어관을 펼친 들뢰즈·가타리의 논의에 기대어 이청준 소설을 살필 수 근거를 제공한다. 들뢰즈·가타리의 언어관을 정리하면, 기호체계의 중요한 요소로서 표현국면을 이루는 언어는 그 자체로서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가능태로서의 새로운 현실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재현적 언어관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비실체적 변형'이다.¹⁰⁾

9) 본고는 다음 자료를 기본자료로 한다. 이청준, 『假睡』,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6/ 『매잡이』, 『매잡이』, 민음사, 1999/ 『다시 태어나는 말-言語社會學序說⑤』, 『황홀한 실종』, 나남출판, 1996/ 『당신들의 천국』(1976), 열림원, 1999/ 『제 3의 현장』(1988), 열림원, 1999/ 『흰옷』(1993), 열림원, 1999.

10)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언어의 기능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명령어-불어에서 명령어란, '군대의 통과 암호, 군호, 슬로건, 모토 등을 의미한다-의 유출이며, 명령어는 명령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에 의해 언표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행위에 연관된다. 명령어의 기본적 기능은 '비물체적 변형'을 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물체적 변형'이란, 사회적 장내에서 행해지는 언표 행위의 부수물로서 표현 국면의 형식을 결정한다.(예컨대 형사재판의 경우, 평결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물체들(범인, 재산, 피해자, 감옥 등)을 사용해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

<假睡>는 “사고가 난 것은 1년 전 일이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는 역진적 시간구조로 전개되는 소설이라면 그 서두에 흔히 놓일 수 있는 문장이기에,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고’란 운평역 부근에서 한 사내의 죽음을 유발한 ‘역사 사건’이다. <假睡>의 서사는 그 ‘역사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다양한 인물의 관점을 통해서 시간의 경계를 지우면서 진행된다는 점이 우선 문제적이다.

사건의 당사자는 E급행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 최씨와 열차에 치여 숨진 ‘주영훈’이라는 사내이다.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개입하는 주변인물로는 담당검사 ‘한치운’, 한치운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유상균’, 죽은 주영훈의 주변인물인 ‘여자’와 ‘허순’ 등이다. 이들을 통해 하나의 사건으로서 선재한 ‘그 일’은 ‘주영훈’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재구성된다. 서사는 주로 고백과 대화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목되는 점은 시간의 경계를 나누는 아무런 서술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주영훈이라는 인물이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다양한 인물의 관점에서 평면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과거와 현재는 그 경계를 허물고 서사적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내에서 펼쳐진다. 독자가 시간의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는 대화를 묶는 ‘ ’과 ‘ ’ 표시인데, 사건이 재구성되는 현재 시점을 기준하여 ‘ ’은 현재의 대화를, ‘ ’는 과거의 대화를 뜻한다. 이처럼 시간을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있음은 현재가 과거와 미래의 만남을 통해 개시됨을 알리는 시각적 효과화라 하겠다.¹¹⁾ 즉 선조적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수직적(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순간들을 현재 내에 끌

가 최수로 변환되는 것은 하나의 순수한, 순간적인 행위, 또는 비물체적인 부가물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표의 ‘표현된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의 몸체에 귀속되는 비물체적 변형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언표행위에 부수되는 비물체적 변형을 사회적 몸체들에 부과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본질적 기능이다. G. Deleuze, 김종호 역, 『대담』, 숲, 1993, 160면/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147~178면.

- 11) 들뢰즈는 현재는 누군가의 시간의 사건과 관련해서만 생각될 수 있고, 그것은 이미-만들어진(ready-made) 중성적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만남을 야기함으로써 사고의 지세학(topology of thought)의 도움을 얻어서 개시될 수 있다고 본다. P. A. Pearson, *The Germinal life of the event-Difference and Repetition*, Routledge, 1999, p.79.

어 모아 펼침으로써 동일한 인물에 의한 어떤 사건의 각기 다른 순간들이 동시적 시간대 내에서 다양하게 재구성됨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작중인물의 다음과 같은 대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리들은 한 사람이 사건의 전체를 정당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에 따라 한 사건이 자기쪽을 향하고 있는 부분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관찰자의 관심의 종류가 그 방향을 결정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자체의 모습은 그런 한정된 시선의 저쪽 너머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우리는 각자의 관심을 따라 한쪽에서 사건에 접근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짜 모습은 그렇게 여러 방향에서 접근해오다 사건의 한 면의 사실과 만난 점에서 다시 상상력을 따라 그어진 여러 연장선들이 만난 지점의 근처에 있을 걸란 말입니다……」(〈假睡〉, 358~359)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상이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사건과 그것을 재구성하는 언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假睡〉에서 선재(先在)하는 것으로서의 ‘역사 사건’은 그 자체로서 이미 세계 내에 존재하는 것, 전-개체적이고 비-인칭적인 ‘사건 자체(eventum tantum)’로서 상정해 볼 수 있다.¹²⁾ 들뢰즈는 모든 사건을 이중 구조 내에서 파악하는데, 그 중 하나가 사건의 미래와 과거를 그 자체로서 포착하는, 따라서 어떤 한 사태의 제한에서 벗어나며 모든 현재를 비켜 가는 ‘사건 자체’이다. 그렇다면 〈假睡〉에서 ‘한치운’, ‘유상관’, ‘허순’ 등 여러 인물들의 말[언어]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건 자체’가 특정 사태 혹은 인칭에 구현되는 순간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언어를 통해 표현된 것(exprimé), ‘사건 자체’에 귀속되지만 그

12) 들뢰즈는 사건을 이중구조 내에서 파악한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존재하는 효과화의 현재 순간, 즉 사건이 사태, 개체, 인칭에 구현되는 순간의 사건이다. 사건의 미래와 과거는 이 일정한 현재에 따라, 그 현재를 구현하는 존재의 관점에 따라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사건의 미래와 과거가 그 자체로서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건의 미래와 과거는 비인칭적이고 전개체적인, 중성적인, 일반적이지도 특수하지도 않은 사건 자체(eventum tantum)이기 때문에 한 사태의 제한들로부터 벗어나며, 따라서 모든 현재를 비껴간다. 사건 자체(eventum tantum)는 ‘비물체적 변형’을 통해 효과화되기 이전의 복수적 가능태로서의 세계이다. G. Deleuze, 『의미의 논리』, 앞의 책, 263면.

와 동일한 것은 아닌 ‘비물체적 효과’라 하겠다. 따라서 <假睡>라는 소설의 형식을 빌어 진술되기 이전의, 작가 이청준이 선재(先在)하는 사건으로서 상정해 둔 ‘사건 자체’와 여러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재구성된 ‘역사 사건’은 각각 내용 국면과 표현 국면을 이루는 것으로서 양자의 관계는 재현의 논리로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란 들뢰즈의 논의에 따르면, 어떤 ‘물체적인 것’에 부수되는 ‘비물체적 효과들’이며, 바로 이것만이 언어를 통해 표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비물체적 효과들’을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즉 비물체적 변형의 수단으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체적인 것’의 표면효과로서 ‘비물체적인’ 사건의 세계라 할 수 있다.¹³⁾ 이와 같은 논의에 기대어 본다면 <假睡>에서 재구성된 ‘역사 사건’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세계-선재(先在)하는 역사 사건-를 재현한 결과이기보다는, 언어 활동에 의해 창조된 현실인 것이다.

<假睡>의 작품분석을 통해 살폈듯이, 이청준 소설에서의 ‘사건의 선재’함은 기법적 참신함-추리소설적 기법의 도입 등-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청준의 비-재현적 언어관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렇다면 언표활동에 부수하는 ‘비물체적 변형’의 주요 변인은 무엇일까? 작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단편 <매잡이>의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펼치도록 하겠다.

한데 한꺼번에 고백을 하자면 이 「매잡이」라는 제목의 글이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서 말한 대로 ① 벌써 발표한 「매잡이」와 ③ 지금 이 글을 합한 두 편은 물론 나의 것이다. ② 거기에 또 한 편이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모두 세 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인가 — 그것이 바로 작고한 민태준 형의 것이다…… (<매잡이> ④).

13) 들뢰즈는 신체적인 능동과 수동의 단순한 상태에서부터 소리를 끌어내어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비실체적 효과들’의 세계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순수사건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언어 내부에서 단일하고, 비인칭적이고, 그리고 전-개체적인 실존을 즐긴다라는 의미에서 언어를 ‘기반하는’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K. A. Pearson, *Germinal Life-The difference and repetition of Deleuze*, op. cit., p.122/ P. Patton, “Introduction”, *Deleuze: A Critical Reader*, ed. by P. Patton, Blackwell, 1996.

320~321)

첫번째 <매잡이>는 일인칭 화자가 자살하기 직전의 ‘민형’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취재여행을 한 결과 쓴 소설이다. 화자는 자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인 매잡이 ‘곽돌’을 직접 취재하여 쓰지는 못하고 ‘곽돌’과 함께 매잡이를 다녔던 ‘버버리’(병어리) 소년의 ‘시늬말’을 나름대로 해독하여 쓴 소설이다. 두 번째는 ‘민형’이 죽기 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쓴 <매잡이>라는 제목의 소설이다. 본고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매잡이>는 소설가 화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그의 작품으로서는 두 번째의 <매잡이>이지만, 같은 제목의 작품으로서는 도합 세 번째의 것이다. 이 작품의 서두에서 화자는 자신이 두 번째로 ‘민형’이 쓴 소설을 읽고서 그 작품에 ‘민형’과 ‘곽돌’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음을 알고 난 후의 놀라움 때문에 세 번째 <매잡이>를 쓰게 되었다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소설의 내용은 자신이 쓴 첫 번째 <매잡이>의 전문과 ‘민형’이 쓴 <매잡이>의 일부를 끼워 넣어서 편집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창준의 <매잡이>는 도합 세 편의 <매잡이>를 싣고 있는 중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각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곽돌’이라는 ‘매잡이’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이하게 재구성된다.

이창준은 <매잡이>에서도 역시 하나의 제목 하에 세 편의 <매잡이>들을 편집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동일한 대상 세계가 다양하게 ‘표현된 것’들로 효과화되는 양상을 펼쳐 보이고 있다. <매잡이>에서는 특히, 서사적 재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곽돌’의 삶이 중층적 매개를 거쳐 씌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매잡이>는 결과적으로 ‘곽돌’에 대한 ‘버버리’(병어리) 소년의 ‘시늬말’, 이를 해독한 화자의 첫 번째 <매잡이>, ‘민형’이 취재하여 쓴 두 번째 <매잡이>, 이 모두를 다시 편집하는 화자의 중재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즉, 세 번째 <매잡이>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자유간접화법에 의해 공존하고 있다.¹⁴⁾ 모든 언어는

14) 들뢰즈에 따르면, 언어의 기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는 언제나 언어를 가정하며, 언어 외적인 출발점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어는 언제나 말해진 무언가 사이에서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들은 것, 타인이 말한 풍분을 전

이미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그 이전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가능대로서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자유간접화법은 언어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예시한다. 따라서 <매잡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곽돌’의 삶을 내용국면에서 얼마나 적확하게 묘사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간접화법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축적됨으로써, 동일한 대상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잡이>가 세 편으로 상이하게 썩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매잡이>는 이와 같은 기법적 장치를 통하여 말(언어)을 통한 서사적 재구성이 실제 대상 세계-매잡이 ‘곽돌’의 삶-를 모사(calque)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 장내에서 ‘표현된 것들[소문]’ 사이에 축적된 ‘비실체적 변형’을 ‘곽돌’의 삶에 귀속시키는 것에 다름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중층적 매개를 통해 세 편의 <매잡이>들이 축적되어 완성된 <매잡이>의 서사구조를 통해, 말[언어]의 ‘지시체’는 대상 세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¹⁵⁾ 그것은 사회적 힘들의 역학관계를 주요 변인으로 하는 비실체적 변형들의 축적에 다름 아닌, 그 이전의 언어들에 대상으로 한다. 이청준의 상당수 작품들은 사회적 권력에 의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한 경우들을 그리고 있다. 장편 《흰옷》 역시 이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 전체 6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제1장 제목은 ‘잃어버린 서장’이다. 여기서 ‘잃어버린 서장’이란 어떤 ‘선재하는 사건’으로서 《흰옷》이라

달한다. 따라서 최초의 언어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간접화법(discours indirect)이다. 이러한 자유간접화법은 언표행위의 사회적 성격을 잘 예시한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행동양식이며 권력관계를 강요하는 기호체제이다. 어떤 개인에 의하여 발화되어졌을 진술은 그 기원과 형식에 있어서 집단적인 것이다. 언어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 의무를 세우는 것이며, 그리고 언어는 주어진 사회의 신체들에 ‘비실체적 변형들’을 초래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따라서 특정 사회에서 표현된 언표들은 그 사회의 몸체들이 귀속되는 비물체적 변형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들뢰즈는 바흐친, 라보프 등이 주관주의·구조주의와 대립하여 언어의 사회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언표의 개인화와 언표행위의 주체화는 비인격적인 집단적 배치물이 그것을 요구하고 결정하는 한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147~167면.

15) <몸체> 또는 사물의 상태는 기호의 ‘지시체(référent)’이다’라고 할 수 없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169면.

는 전체 서사의 서술부에 해당한다.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이 서술부는 이어질 서사의 진행을 통해 그것의 주어부를 찾게 된다. 《흰옷》에서 ‘종선씨’는 ‘해변마을 임시분교’에서의 경험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살아간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그의 아들 ‘동우’는 아버지의 추억을 사실로서 재구성해 내기 위해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어 나간다. 아버지 ‘종선씨’의 추억이란 시골 조그마한 분교에서 보낸 학창시절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는 그 분교를 세웠던 젊은 ‘이 열’ 교장, 그리고 품음을 잘 치고 어린 ‘종선씨’를 사랑해 주었던 ‘전정옥’ 교사 등에 얽힌 사연들이 있다. 당시 좌경인사로서 지하활동을 하였으리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전적이 ‘동우’가 재구성해 나가는 ‘잃어버린 서장’의 주어부를 채워나간다.

그런데 이들이 좌익사상에 경도되어 지하활동을 하였다는 지난 행적은 다만 소문으로서 떠돌 뿐, 그 진정한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종선씨’는 ‘이 열’ 교장과 ‘전정옥’ 선생의 지난 행적을 회고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고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이 가장 첨예하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이 부역활동에 가담하였던 것은 “한 평범한 시골학교 교장의 순수한 인정과 의기”(《흰옷》, 122)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좌익사상이나 지하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을 좌익사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의 현실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언어활동에 부수하는 가능태로서의 현실임을 드러내 보인다. 《흰옷》의 서사 진행은 이러한 ‘종선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결말부에서 아버지의 지난 삶과 관련하여 ‘잃어버린 서장’을 다시 쓰고자 하였던 아들 ‘동우’ 역시 “환상만이 지난날의 분명한 실제의 증거임”을 깨닫는다. 결국 ‘잃어버린 서장’의 주어부는 실제의 사건과 언어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갈등이 첨예하였던 당시의 사회적 장내에서 사회적 힘들의 작용에 의해 비실체적 변형을 경유한 그 이전의 축적된 말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즉 ‘선재하는 사건’으로서 상정된 ‘잃어버린 서장’이 그 자체로서 이미 존재하는 세계라면, 이의 서사적 재구성은 실제하는 사건 자체를 그 외적 지지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어의 비실체적 변형을 경유한 그 이전의 말들, 즉 풍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인 것임을 《흰옷》은 사건의 선재함이라는 서사적 장치들 통해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지칭(이름)'의 불확정성과 '동사적 생성'의 세계

이상에서 '선재하는 사건'을 재구성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이청준 소설의 기법적 장치를 통해, 이청준에게 있어 글쓰기란 이미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외적 세계를 지시대상(référent)으로 하여 그것을 동일성 원리에 의해 재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어활동과 동의연적 관계에 있는 비실체적 변형들의 집적에 다름 아닌 것임을 살폈다. 즉, 서사적으로 재구성된 사건은 '선재하는 사건'을 그 자체로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표활동에 부수하는 '비실체적 변형들'이 개재함으로써 '차이'를 담지한 가능태로서의 현실을 펼쳐 보이는 것임을 살폈다. 본 장에서는 인칭화된 사건 내에서 지칭들(이름)과 인물형상 간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비-재현적 언어관을 뒷받침하는 작가의 세계관을 살피도록 하겠다.

《제3의 현장》에서 '백남희'는 "(사건)당시의 나와 지금의 나는 아무리 해도 같은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이 "원행위와는 거리가 먼 꼭두각시의 놀음"(《제3의 현장》, 24)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백남희'의 이러한 생각에는 '나'를 시간의 질서 내에서 분리하여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백남희'는 시간의 질서 내에서 '차이'들을 담지하면서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칭대명사 <나>가 규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칭대명사 <나>가 '나'를 <나>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 지칭의 순간에 초래되는 비실체적 변형이 '나'라는 몸체의 무한한 변수들 가운데 어느 한 상수를 끌어올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¹⁶⁾ 인칭대명사 <나>가 '나'를 주체로서 규정지을 수 없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세계관의 문제로 이어진다. 즉, 지칭 <나>가 '나'를 주체로서 규정할 수 있는 명사적 정지 상태보다는 계속해서 동사적 술어부로 미끄러지는 측면을

16) 들뢰즈는 <나>라고 하는 지칭도 명령어인데, 명령어는 단어 자체를 언표행위로 만드는 변수이다. 명령어의 순간성과 직접성은 변형이 귀속되는 몸체들을 변주할 역량을 단어에 제공한다. 따라서 명령어로서 <나>라고 하는 지칭은 고정된 상수이기 보다 명령어의 비물체적 변환을 담지하는 것이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164~165면.

우위에 두고 있다는 백남희의 생각은 변화·생성으로서의 세계인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¹⁷⁾ 들뢰즈는 세계를 동일한 정적 체계로서가 아니라, 무한한 차이의 반복을 통해 생성중인 동적인 체계으로 파악하는데, 《제3의 현장》에서 ‘백남희’의 독백은 이러한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건 당시’ 혹은 ‘지금’과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나’는 <나>라고 하는 지칭 내에서 순간적으로는 한 주체로서 고정될 수 있겠지만,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체는 실제로 무한한 ‘차이’들을 담지하면서 생성중인 몸체로서의 의미가 크다.

단편 <假睡>는 ‘주영훈’이라는 동명이인의 인물을 반복 등장시킴으로써, ‘고유명사’를 통한 지칭이 주체의 표식일 수 없음¹⁸⁾을 작품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인의 남편은 제 이름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는 한 호적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가 제 이름을 빌린 것이지요. 애초에 그에게는 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린 제 이름을 가지고 죽어버림으로써 그 이름을 아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제 이름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말입니다. (<假睡> 346~347)

<假睡>에서 1968년과 1969년의 동일한 날짜에 일어난 두 개의 ‘역사 사건’의 피해자는 ‘주영훈’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명의 남자이다. 1968

17) 들뢰즈의 동사적 슬어부를 강조하는 동적 생성으로서의 세계인식은 영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통해 비-재현적 기호학(non-representational semiotics)을 이룬다. 들뢰즈에 따르면, 영화의 동작-이미지(movement-image), 시간-이미지(time-image), 그리고 음향효과(sound) 등은 연속성 내에서 전체로서의 세계를 ‘표현’한다고 본다. R. Bogue, *Word, Image and Sound-The non-representational semiotics of Gilles Deleuze*, op. cit, pp.81~98.

18) 들뢰즈에 따르면 고유명사는 결코 주체의 표지가 아니다. 고유명사는 사건, 되기(becoming)의 질서에 속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고유명사는 어떤 한 시체의 주체가 아니라, 부정법의 동작주(agent)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관점에서 지칭 가능한 주체의 삶이란 결정된 세계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확산된 잠재력과 가상적 실제화로 충만한, 가능한 어떤 것이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역, 새물결, 2001, 493~503면/ K. A. Pearson, *The Germinal life of the event-Difference and Repetition*, op. cit., p.96.

년의 사고를 통해서도 교사 '주영훈'이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1969년의 사고에서는 <한국 펜팔 구락부>에서 일하는 '주영훈'이 동일한 형식으로 사고를 당한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날 당시 열차를 운전하였던 기관사 '최씨'는 정확히 1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인 것으로 고집한다. 그런데 '최씨'의 이러한 주장은 다수 인물들에 의해 밝혀지는 사건이 전모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재구성된 서사에 따르면, 죽은 '주영훈'들은 동일한 호적을 사용하는 동명이인의 인물들로서 교사 '주영훈'이 죽었을 때 <한국 펜팔 구락부>에서 일하는 '주영훈' 역시 그의 존재함을 근거하는 모든 표식들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살아남은 '주영훈'이 세계 내에 자기의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 '주영훈'에게 빼앗긴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교사 '주영훈'의 삶을 반복하는 <한국 펜팔 구락부>의 주영훈은 기관사 최씨에게 실재가 아닌 환상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물 역할의 반복이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假睡>가 본 장의 논의내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기관사 최씨가 두 '주영훈'의 죽음을 단일하게 인식함은 동명이인의 '주영훈'들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 <假睡>에서 작가의 의도는 기관사 최씨의 환상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말을 흐리는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재배열하여 '역사 사건'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관사 최씨의 환상과 실제의 사건 자체에 개재하는 '차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행동을 한 인물들을 모두 '주영훈'이라는 이름으로 파악한 기관사 최씨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관사 최씨에게 있어서 '주영훈'을 '주영훈'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고유명사'가 실제로 지칭하는 특정 대상과의 관련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주영훈'이란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특정 인물 '주영훈'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행위의 동작주일 뿐인 것이다. 즉, <假睡>에서 기관사 최씨에게 있어 고유명사 '주영훈'이란, 특정 인물 '주영훈'을 고정된 주체로서 규정하는 명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어떤 행위의 동작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하

겠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고유명사-지칭-가 그 대상을 고정된 실체로서 규정할 수 없음을 살필 수 있었다. 즉, 이청준 소설의 인칭화된 사건이 가능태로서의 사건이었다면, 그 안에 구현된 인물 역시 지칭들(이름)의 불확정성 내에서 가능태들로서 존재한다고 하겠다.¹⁹⁾ 이러한 양상은 장편 《흰옷》에서 ‘동우’가 아버지 ‘종선씨’의 해변가 마을에서의 아름다웠던 학창시절을 재구성하기 위해 아버지의 임시분교 시절 은사였던 ‘방진모’ 노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 내게다 그런저런 이름들을 붙여줬거든. 그러니 부득불 그것을 다 수긍하고 살아온 내가 그런 내 일을 어떻게 알아……그런데 이제 와서 옛제자의 아들이 내게 와 다시 그 말 그릇에 내 이름과 생애를 지어 담고 싶어하니 내가 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하겠는가.”(《흰옷》 195)

위의 인용문은 6·25 전쟁을 전후하여 좌·우익 이데올로기 갈등이 가장 심화되었을 당시, ‘방진모’ 선생 자신의 사상적 편향을 묻는 ‘동우’의 질문에 대한 노인의 항변이다. 당시의 ‘방진모’ 노인은 타자들이 붙여준 ‘이름들’로 존재하였을 뿐이고, 그 이름이 나타내는 자신의 생애를 ‘말 그릇’으로는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진모’ 노인의 항변은 우선 타자들이 자신에게 붙여준 여러 ‘이름들’이 시간의 질서 내에서 끊임없는 ‘차이’들의 연속으로서 존재하는 ‘나들’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이름들’로서 ‘방진모’ 노인 자신을 규정할 수 없음을 뜻한다. 여기에서 ‘이름’이 주체를 고정된 실체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법(不定法) 동사의 동작주로서 표현할 뿐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 ‘단일’ 혹은 ‘이중’이라고 하는 것에 근원이나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이에는 경계가 없는 차이만이 존재하고, 더욱이 그 사이에는 무한한 ‘지칭들’만이 있다. R. Gasche, *The Tain in the Mirror-Derrida and the Philosophy of Reflection*, Harvard Univ. Press., 1986, p.226. ** 들뢰즈는 주체가 타자를 통해 어떻게 주체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한 레비나스와의 달리, 주체를 어떻게 비인격적이고 익명적인 상태로 되돌려놓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에 따르면 주체란, ‘나’를 <나>라고 부르는 습관, 유명론적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서동욱, 『차이와 반복』, 앞의 책, 156면.

《흰옷》의 경우, ‘동우’에 의해 재구성되는 <잃어버린 서장>의 시대적 배경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그 ‘이름들’이 타자들에 의해 강요된 것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인용문은 ‘방진모’ 노인 자신을 포함하여 ‘동우’가 되살리고자 하는 <잃어버린 서장>의 주어부에 존재하는 ‘이 열’ 교장, ‘전정옥’ 선생 등에게 당시 부여된 ‘이름들’이 그들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부여된 ‘유명론적 이름들’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사회적 힘들의 자장 내에서 그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당신들의 천국》에서는 동상(銅像)의 상징성을 통해 말[언어]이 세계를 명사적 정지 상태로 규정할 수 없음을, 동사적 서술부에 우위를 두는 서사적 지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의 초두에서부터 ‘이상옥’이라는 인물은 문둥병 환자들의 섬, 소록도에 새로 부임하는 ‘조백현’ 원장이 자신의 ‘동상’을 세우게 될 것을 경계한다. 여기에서 ‘이상옥’이 경계하는 ‘동상’은 다음의 두 방향에서 그 함의하는 바를 살필 수 있다. 그 하나는 ‘동상’이 작품의 초반부에서 계속적으로 ‘부임연설’과 동일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약속의 말[言]’을 뜻하며, 다른 하나는 동적 생성의 의미를 말소한 주물화된 실체로서의 동상(銅像)을 뜻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록도의 병원장으로 초창기에 부임해온 일본인 ‘주정수’라는 인물은 처음 부임인사에서 갖가지 공약들로 자신이 소록도에 낙원을 건설해 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원생들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하나둘씩 실현되어 간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말을 실현시킨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병원의 본관 건물 앞에 자신의 동상(銅像)을 세운다.

이러한 ‘주정수’의 행적을 앞서 지적한 동상이 함의하는 두 가지 의미와 관련하여 살필 때, ‘주정수’가 자신이 한 말의 실현을 동상(銅像)이라는 주물화된 실체로써 고정시키고 있음은 변화와 생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의 서술부(동사)보다는 사건을 정지 혹은 휴지의 상태로 고정시키는 주어부(명사)에 우위를 두는 것이 된다. ‘이상옥’이 ‘조백현’ 원장에 의해 다시 동상(銅像)이 주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은 그것이 창조와 생성으로서의 동사적 서술부를 정지 혹은 휴지 상태의 주어부(명사)로 환원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옥’의 우려와 달리 소록도 병원의 열 번째 원장으

로 부임한 ‘조백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심사 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동상을 완성해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완료형의 고정된 실체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서술부 내에서 창조적 생성의 힘을 간직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창조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듯이, 이청준의 작품세계에서 지칭들(인칭대명사/(고유)명사)은 대상 인물을 주체로서 규정하기보다는 계속적인 동적 생성의 과정으로 미끄러지는 불확정성을 드러내 보인다. 이처럼 이청준의 소설이 서사의 주어부(인물들)보다는 동사적 서술부(사건)에 우위를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통해 동적 생성으로서의 세계 인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세계를 ‘차이의 영원한 반복’으로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일성 사유에 기반한 재현의 논리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²⁰⁾

4. ‘소리(음악)’ 기호를 통한 ‘선재하는 사건’의 해독

1965년 단편 <퇴원>으로 등단한 이래, 꾸준히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청준의 문학세계에서 언어[말]의 현실 재현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소리(음악)’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²¹⁾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말>과 <남도 소리> 연작을 비롯하여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청준의 장편소설들에서 ‘소리(음악)’의 문제는 ‘말(언어)’에 대한 탐구와 동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장은 앞서 살핀 비-재현적 언어관 및 세계 인식의 접면에서 ‘소리(음악)’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이청준의 독창적인 글쓰기 원리를 밝히도록 하겠다.

이청준은 <언어사회학 서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20) 들뢰즈는 세계를 “동일한 것의 재현으로서의 반복이 아닌 차이의 영원한 반복”으로서 파악함으로써, 동일성 사유에 반하는 비-재현적(반-모방적) 기호학을 개진한다. 여기서 차이란 곧 생성이다. R. Bogue, *Word, Image and Sound-The non-representational semiotics of Gilles Deleuze*, op. cit, p.81.

21) 여기에서 ‘소리’는 이청준이 《서편제》 《남도소리》 연작 등에서 주요하게 다룬 판소리를 비롯하여, 노래, 웅얼거림 등 ‘말’의 형식을 벗어난 넓은 의미에서의 음악을 지칭한다.

서 문학에서의 언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데, 그 가운데 단편 <다시 태어나는 말-言語社會學序說⑤>을 통해서 이청준의 ‘말[언어]’에 대한 탐구가 ‘소리(음악)’의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본고의 논의 맥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²²⁾ 이 작품에서 주인공 ‘지옥’은 “말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겪은 ‘글장이’로서 “순결을 잃지 않은 말”을 찾고자 한다. ‘지옥’은 어느 날 《草衣選集》이라는 시문집을 읽고서 “순결을 잃지 않은 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책의 편역자인 ‘김석호’라는 사람과 교우를 시작한다.

(1) — 茶禮의 品泉에 이르기를, 茶는 물의 神이요, 물은 茶의 體라 하였는데, 眞水가 아니면 그 神이 나타나지 않으며, 眞茶가 아니면 그 體를 볼 수 없다 하였다. (<다시 태어나는 말-言語社會學序說⑤>, 286) / (2) 사물과의 약속을 떠나 버린 말, 실체의 옷을 벗어 버린 말, 내용으로는 이미 메시지가 될 수 없는 말, 일정한 질서도 없이 그것들 스스로 원하는 형식으로밖에는 남아 있을 수가 없는 말, 그런 말들에 대한 실망은 지옥 자신이 이미 충분할 만큼 경험을 해 온 터였다. (286) / (3) (지옥) “사람이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 것 역시 그 자기 표현의 한 발전된 형식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도 그 노래나 시의 내용에 앞서 그 형식 자체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설득력이나 공감력을 잃을 때, 혹은 그것이 어딘지 거부스러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특히 그 형식 쪽에 자신의 표현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85)

‘지옥’의 언어에 대한 절망이란 (2)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2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언어활동에 부수하는 비실체적 변형에 대한 인식에 다름 아닌 것이다. 언어가 사회적 힘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권력의 논리에 의해 실제의 내용과 무관하게 왜곡되는

22) 김치수는 이청준이 ‘소리’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문학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영원한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말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는 이청준이 ‘소리’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말들이 믿음을 잃고 떠도는 시대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의 탐구인 것으로 본다. 김치수, 「말과 소리」,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47면. ** 본고는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서의 ‘소리(음악)’이 이청준 소설에서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서 작동하는 원리를 살피도록 하겠다.

상황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지옥이 찾고자 하는 “순결을 잃지 않은 말”이란 《草衣選集》에 수록된 (1)의 구절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진실한 내용과 표현이 상호 전제되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에서 차[茶]가 “인간의 정신 혹은 사유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물은 곧 “말”[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眞水가 아니면 그 神이 나타나지 않으며, 眞茶가 아니면 그 體를 볼 수 없다” 하였으니, 진정한 내용을 위해서는 진정한 말[표현]이 필요하며, 그 역의 관계 역시 필요한 것이다. ‘지옥’이 ‘김석호’를 찾아 해남까지 간 것은 “眞水”와 “眞茶”의 상호 전제적인 관계를 통해 진정한 다도(茶道)에 이를 수 있다는 《草衣選集》에 수록된 “음다법(飲茶法)의 기본 규범”을 통해 “순결을 잃지 않은 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선재함과 그것의 인칭화라는 이청준 소설의 기법적 특질은 표현국면과 내용국면을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양자가 결코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결합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이청준의 비-재현적 언어관을 드러내 주었다. 이처럼 상호 분리된 내용국면과 표현국면은 각각 그 자체의 실체와 형식을 가지고서 변주된다.²³⁾ 인물의 존재 방식과 지칭의 관계를 통해 살폈듯이 내용국면으로서의 대상 세계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면서 변화·생성된다. 그런데 비실체적 변형을 수반하는 언어의 형식이 사회적 힘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어 규정될 때, 그 왜곡된 상황으로부터 탈영토화할 수 없을 때, 내용국면과 표현국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 ‘지옥’을 절망케 한 “순결을 잃어버린 말”이 되는 것이다. 언어의 비실체적 변형을 조종하는 사회적 힘에 의해 ‘표현된 것(extrimé)’이 “실체의 옷을 벗어버린 말, 내용으로는 이미 메시지가 될 수 없는 말”이

23) 내용과 표현은 사회적 배치물 내에서 몸체의 체제와 기호의 체제로 구분되어 있지만, 상호 전제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비물체적 변형은 명령어의 ‘표현된 것’이지만, 몸체의 속성이기도 하다. 비물체적 변형은 언어적 변수일 뿐만 아니라 내용의 비언어적 변수이기도 하다.(모든 표현 또는 표현된 것은 내용에 끼워 넣어지고 개입한다). 세계(사회적 몸체) 비언어적 힘들에 의해 변화, 생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호의 체제도 연속적 변주의 과정 내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들뢰즈는 기호 체제의 생성과 관련하여 ‘권력’과 ‘지배’의 영역에 있는 다수어로부터의 탈영토화로서 소수어-되기를 들고 있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195 ~213면.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부터의 탈영토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3)의 인용문에서 ‘지옥’은 표현된 내용이 설득력이나 공감력을 잃을 때, 새로운 형식의 발견을 통해 그 형식 자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 새롭게 발견된 표현 형식은 바로 ‘소리(음악)’인 것으로 드러난다. 음악은 목소리의 탈영토화로서, 음악에서 목소리는 점점 더 언어와 멀어진다. 음악은 그 형식에 있어서 대위법을 통한 횡단적 가로지르기와 주제의 변주가 가능한 예술로서, 그 어떤 장르의 예술보다 강력한 탈영토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력한 탈영토성을 바탕으로 음악은 가장 덜 “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술이다.²⁴⁾ 따라서 <다시 태어나는 말>의 ‘지옥’이 발견한 ‘소리(음악)’는 사회적 힘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순결을 잃어버린 말”로부터 탈영토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그렇다면 ‘말[언어]’로부터 탈영토화된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서 ‘소리(음악)’는 이청준의 소설, 나아가 그의 글쓰기 내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 이청준의 소설에서 ‘말[언어]’이 선재(先在)하는 사건, 혹은 가시적 현실을 재현해 내기 위한 표현 형식이었다면, ‘말[언어]’로부터 탈영토화된 것으로 상정된 ‘소리[음악]’는 이와 대척되는 지점에 놓인다 하겠다. 이후의 논의를 통해 이청준의 소설에서 ‘말[언어]’이 기재하거나 혹은 가시적인 대상 세계를 재인식함으로써 서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표현 형식이었던 것과 달리, ‘소리[음악]’가 해독되어야 할 ‘기호’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²⁵⁾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청준 소설의 ‘사건의 선재’함이

24) 들뢰즈는, 음악이 좌표나 점판적 체계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는 횡단선을 통해, 표현의 층위에서 되기(생성)의 블록, 즉 표현의 블록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리고 대위법적 변주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 형식을 생성할 수 있는 음악은 강력한 탈영토성을 지닌 예술 장르로서, “파시즘적” 위협의 잠재성을 가짐과 동시에 가장 덜 “사회적”일 수 있는 예술 장르이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565~572면.

25) 여기서 “기호” 개념은 들뢰즈와 푸루스트의 작품을 논한 저술 『푸루스트와 기호들』에서 차용한 것이다. 들뢰즈에게 기호란, 의사전달의 매개체가 아니라, ‘우연히’ 나타나 자기 안에 들어 있는 바를 해석하기를 “강요”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푸루스트와 기호들』에서 들뢰즈는 기호 해독과 관련된 능력들(특히 기억력)의 발생적 활동을 재인식하는 활동과 대립시킨다. 여기에서 ‘재인식과 기호 해독의 대립구도’가 성

란 서사적 장치는 ‘선재하는 사건’ 자체가 말[언어]을 통해 재현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였다. 이 ‘선재하는 사건’을 전-개체적이고 비-인칭적인 계열들과 차원들만이 있는 본질적 세계로 상징할 때, 이 본질적 세계의 드러남이란 불가능한 것인가? 이청준 소설은 말[언어]의 자리에 ‘소리[음악]’라는 예술적 기호를 들으로써, 그것의 해독을 통해 선재하는 사건을 그 자체-언어의 비실체적 변형을 초래하는 사회적 힘들의 자장 너머에서-로서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²⁶⁾

《제3의 현장》에서 등장인물 ‘백남희’의 독백은 앞서 살폈듯이 언어[자술서]가 과거를 그 자체로서 재현해 낼 수 없다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계속해서 다시 쓰여지는 ‘자술서’의 내용은 ‘오검사’가 사건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백남희’의 문제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암시적으로 제시한다. 후자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해석자의 몫인데, 이 두 가지 문제 모두에 가수 ‘백남희’의 노래 <다시 부르지 못하는 노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백남희’의 ‘자술서’를 통해 밝혀지는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①삶의 나락에서 절망감에 휩싸여 있

립하는데, 재인식이 재현과 유관하다면 기호 해석은 비-재현적 사유의 영역에 속한다. 서동욱, 『사유의 이미지와 발생의 문제: 재인식 대(對) 기호 해독』,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1997, 303면/ 서동욱, 『차이와 타자』, 민음사, 2000, 64~65면.

- 26) 들뢰즈는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기호들을 사랑의 기호, 감각적 기호, 예술의 기호로 분류하는데, 이중 예술의 기호가 세계일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감싸여 있는 본질의 세계를 펼쳐 보일 수 있다고 본다. 들뢰즈에 따르면, 예술가는 잠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로서의 주체는 본질 자체 속에 감싸여 있는 복합적인 근원적 시간에 대한 계기를 가지고 있다. 이 근원적 시간은 모든 계열들과 차원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G. Deleuze,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역, 앞의 책, 69~85면/ 서동욱, 『차이와 타자』, 앞의 책, 67~74면/ R. Bogue, 『들뢰즈와 가타리』, 앞의 책, 63~77면. ** 여기에서 다른 예술장르와 구별되는 음악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들뢰즈는 문학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등과 관련하여 비-재현적 기호학을 펼치는데, 그에 따르면, 구조와 발생에 맞서 과정을 긍정하고, 박동하는 시간 또는 템포에 맞서 유통하는 시간을 긍정함으로써, 내재성의 평면(기관없는 신체)을 펼칠 수 있는 장르이다. 그리고 들뢰즈는 영화의 음향 효과와 관련하여 특히, 음악이 질적인 시간의 흐름(flux) 내에서 전체로서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G. Deleuze & P. Guattari, 『천 개의 고원』, 앞의 책, 507면/ R. Bogue, Word, Image and Sound-The non-representational semiotics of Gilles Deleuze, op. cit, p.93.

던 ‘구종태’가 ‘백남희’를 납치하는데, 그 범행 동기는 ‘백남희’가 부르는 노래가 도발하는 ‘분노와 열망’ 그리고 ‘황홀스런 열정’이다. ②그들은 말없는 가운데서 같은 공간에 거처하면서 육체적으로 가까워지고 ‘백남희’는 묻지 않고도(말 없이도) ‘구종태’를 믿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 자신을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구종태’와 동일시하게 된다. ③그런데 ‘구종태’가 자신의 말로 ‘백남희’를 납득시키려 하였을 때, ‘백남희’는 그가 믿고 역겹게 느껴진다. ④둘은 <다시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틀어 놓고 동반자살을 계획하였으나, ‘백남희’는 ‘구종태’만이 자살하도록 유인, 방조한다.

이러한 사건 진행을 유발하는 내적 요인을 정리해 보면 각각 ①노래-②육체-③말-④노래이다. ①②의 과정에서 노래와 “육신 속에 깃든 영혼이 떨려나오는 노랫소리 같은” 것으로 묘사되는 육체의 쾌락은 등가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백남희’는 “말과 행동의 진공상태”에서도 ‘구종태’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③의 ‘말(言)’을 통해서 ‘백남희’는 ‘구종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잃고 만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작품에서 노래는 언어와 대척되는 지점에 놓이는 그 무엇인 것이다. 여기에서 ‘노래’는 ‘말’로는 소통할 수 없는 상대방의 진실을 해독해 낼 수 있는 ‘기호’로서, 그들은 ‘백남희’가 부르는 <다시 부르지 못하는 노래>에 대한 침묵의 해석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획득하고 서로를 이해한 것이다. 그들은 노래라는 예술적 기호를 통해, 서로를 타자이게 하는 내적 차이들을 넘어서 본질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구종태’를 죽인 범인이 ‘백남희’일 것이라는 심증을 굳힌 ‘오검사’는 결정적으로 ‘백남희’의 <다시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이용해 사건해결을 하게 된다. “과거가 현재를 명령하면서 그의 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을 뿐이라면, 그 명령과 완료형의 현재형 자체가 과거의 완전한 재현일 수는 없”(《제3의 현장》, 231)음을 주장하던 ‘백남희’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오검사’가 현장검증 장소에 넣어놓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라진 과거의 시간대를 있는 그대로 부활시킨다. <다시 부르지 못하는 노래>라는 기호가 촉발하는 비자발적 기억에 의해서 ‘백남희’의 과거 살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현장검증 장소에서의 경험간 차이는 현재의 경험에 내재적인 것으로 된다.²⁷¹ 결국 백남희는 과거와 현재의 상이한 두 시간대에서 동일하게

올려 퍼지는 노래 기호의 해독을 통해 그것이 감싸고 있는 선재하는 사건을 그 자체로서 펼쳐 보이게 된다.

《흰옷》에서 천성적인 바람기를 이길 수 없었던 ‘종선씨’의 아버지, ‘황영감’은 대구섬으로 ‘말하는 고기’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전정옥’ 선생을 피어 강압적으로 신고 갔던 이후로, ‘전정옥’ 선생의 ‘풍금소리 적선 행각’에 동참하면서 이전의 강압적 태도를 버리고 전선생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이러한 인물관계의 전도는 ‘말하는 고기’의 거짓신화로는 전할 수 없었던 진실과 꿈을 ‘풍금소리’라는 예술적 기호를 통해 펼칠 수 있었음을, 그리고 양자가 ‘풍금소리’라는 기호의 해독을 통해 상호주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그래, 자네는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자네가 제 지난날에 겪고 감내해온 일들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194) / — …… 난 그 시절 다른 건 몰라도 이 노래 속의 밝은 꿈만은 지켜가고 싶었거든…… 자, 그러니 자네가 지금 여기서 몇 곡을 쳐보게. 제목이나 가사 같은 건 상관하지 말고, 그래보면 자네가 내게 알고 싶은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 내겐 그것밖에 말해줄 것이 없고…… (198)

위 인용문에서 ‘방진모’ 노인은 아픈 과거의 사실들을 묻는 ‘동우’에게 자신은 그것을 말할 수 없고 잘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한다. 방진모 노인은 시간의 흐름에 내맡겨진 자신이 과거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과거의 주변인물들에 대해 자신의 빈약한 언어를 통해 그 모든 것들에 내포된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진모’ 노인이 연주해 보기 원하는 ‘노래’란 선재하는 사건으로서의 그 시절을 ‘나타남(presentation)’ 그 자체로 감싸고 있는 기호라 할 수 있다. 노인은 ‘동우’가 그 시절을 연상시키는

27) 들뢰즈는 감각 경험의 기호들-비자발적인 기억의 기호들-이 예술의 기호들에 가장 가깝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질들과 순수 과거의 존재를 드러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발적인 기억은 관념들의 단순한 연합(association) 이상의 무엇이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경험들은 단지 서로를 닮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두 시간 속에서 스스로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G. Deleuze, 『프루스트와 기호들』, 앞의 책, 72~73면/ R. Bogue, 『들뢰즈와 가타리』, 앞의 책, 1995, 70면.

‘노래’라는 기호를 통해서 그 시절의 진실을 해독해 내기 바란다. ‘동우’의 기호 해독이란 ‘불명확함(équivoque)’을 본질로 하는 기호와의 우연적 만남을 통해 자신이 알고자 하는 ‘선재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다.²⁸⁾ 따라서, 그것은 과거에 대한 재인식이 아니라, 기호해독을 통한 미래적인 창조이며 생성이라 할 수 있다. 오직 ‘노래’로써 세대를 달리하는 ‘동우’와의 상호주관적 소통을 이루려 하는 ‘방진모’ 노인에게 있어 그 노래의 언어적 측면, 즉 ‘제목이나 가사’는 의미없는 것이 된다.

5.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이청준의 작품 세계에서 선재(先在)하는 사건들이 인칭화되는 양상, 그리고 인칭화된 사건 내에서 인물의 존재방식과 ‘지칭(인칭대명사/고유명사/이름들)’의 관계 등을 통해 언어 및 세계 그리고 양자의 관련 양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필 수 있었다. 이청준 문학에서 사건의 선재(先在)함은 우선 소설이 “어떻게 씌어졌는가?”의 문제, 즉 기법적 측면에서 중요한 특질이다. 그런데 본고는 이러한 기법적 장치가 작품의 내용국면과 표현국면의 분리를 전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 국면의 관계를 살피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사건의 선재’함이라는 기법적 장치를 논의의 단초로 하여 살핀 결과, 본고는 언어를 통한 사건의 인칭화(표현)가 그 자체로서 선재하는 사건(내용)을 동일성에 기반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양 국면간에는 사회적 권력을 주요 변인으로 하는 언어의 ‘비실체적 변형’과 동의연적인 ‘차이’가 개재함을 살핌으로써 이청준의 비-재현적 언어관을 도출할 수 있었다.

28) 기호의 “용기”속에 담긴 내용물은 완전히 상실된 것이거나 혹은 전에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기호는 ‘불명확함équivoque’을 특징으로 하며, 그 불명확함 때문에 기호는 인간이 그것을 해독하도록 사유를 자극하고 강요할 수 있는 것이다. 들뢰즈는 “진리는 전달되지 않고 해석된다”라고 하였는데, 따라서 불명확한 기호의 해독작용을 통해 내용물을 다시 획득하는 것은 하나의 창조 행위이다. G. Deleuze, 『프루스트와 기호들』, 앞의 책, 144~145, 181면/ 서동욱, 『차이와 반복』, 앞의 책, 74~70면.

한편 인칭화된 사건 내에서 인물들의 존재 방식과 ‘지칭들’간의 관계를 통해 이청준의 소설에서 ‘지칭들’이 인물을 주체로서 규정하기보다는 계속적인 동적 생성의 과정으로 미끄러지는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이청준의 소설이 정지·휴지 상태를 나타내는 주어부(인물들)보다는 변화·생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동사적 서술부(사건)에 우위를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칭화된 사건 내에서 인물은 ‘지칭들’의 불확정성 내에서 익명화되고, 그를 통해 동적 생성으로서의 세계인식이 드러남을 살필 수 있었다. 이상 이청준 소설에서의 ‘사건의 선재’라는 기법적 장치, 인물을 주체로서 규정하기보다는 부정법(不定法) 동사의 행위주로서 형상화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본고는 이청준의 언어관 및 세계관, 그리고 양자를 종합하여 동일성 사유에 반하는 비-재현주의적 글쓰기 양상이 드러남을 살필 수 있었다.

이청준은 이러한 비-재현주의적 글쓰기 양상은 ‘소리[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청준이 ‘소리[음악]’를 ‘말[언어]’와 대척되는 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 주목, ‘소리[음악]’가 이청준 소설에서 갖는 의미 및 특질을 살폈다. 본고는 이청준의 비-재현주의적 글쓰기 양상이 언어의 비실체적 변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권력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청준이 강력한 ‘탈영토성’을 지닌 예술 장르로서 평가되는 ‘소리[음악]’를 ‘말[언어]’과 대척되는 지점에 두고 있음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즉, 이청준의 소설에서 ‘소리[음악]’는 ‘말[언어]’의 상황으로부터 탈영토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한편, 새로운 표현 형식으로서 ‘소리[음악]’의 특질 역시 ‘말[언어]’과의 관련선상에서 살폈다. 이청준의 소설에서 ‘말[언어]’이 기재하거나 혹은 가시적인 대상 세계를 재인식함으로써 서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표현 형식이었던 것과 달리, ‘소리[음악]’는 해독되어야 할 ‘기호’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았다. ‘사건의 선재함’이라는 기법적 장치를 통해 ‘말[언어]’이 ‘선재하는 사건’ 자체를 재현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인 이청준은 ‘소리[음악]’를 해독되어야 할 예술적 기호로 상징함으로써, 그 기호의 해독을 통하여 인물들이 ‘선재하는 사건’ 자체를 모든 차원들과 계열들을 포함하면서 유동하는 본질적 세계로서 사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술적 기호의

해독은 과거에 대한 재인식이 아니라, 사유를 통한 미래적 생성이자 창조이며, 본질적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따라서 '소리[음악]'은 이청준이 비재현적 언어관 및 동적 생성으로서의 세계인식의 접점에서 새롭게 제시한 표현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이청준, 『가수(假睡)』, 『별을 보여드립니다』, 일지사, 1976.
- , 「다시 태어나는 말—언어사회학서설⑤」, 『황홀한 실종』, 나남출판, 1996.
- , 『매잡이』, 『매잡이』, 민음사, 1999.
- ,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1999.
- , 『제3의 현장』, 열림원, 1999.
- , 『흰옷』, 열림원, 1999.
- 권택영,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 『외국문학』 10, 1986.
- 김영성, 「이청준 초기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99.
- 김윤식, 「심정의 넓힘과 심정의 좁힘—이청준론」, 『한국현대소설비판』, 일지사, 1981.
- 김준우, 「이청준 소설의 비판적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류양선, 「낙원에의 꿈과 관념의 정치학: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론」, 『가톨릭대 성심어문연구』, 1999.
- 마희정, 「이청준 소설의 탐색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1995.
- 박희일, 「이청준 소설의 주체구현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 신정현, 「달핍에서 열림으로: 이청준의 ‘흰옷’에 나타난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결합과 열림의 미학」, 『문예중앙』, 1994.
- 이태동, 「역사적 현실과 작가의 비전: 이청준의 근작, ‘인간인’의 세계」, 『문예중앙』 19, 1992.
- 이현나,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연구 : 주체분열의 담론구조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97.
- 임순영,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말(언(言))’의 인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1998.
- 조남현, 「문체적 인물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문학사상』 142, 1984.
- 서동욱, 「사유의 이미지와 발생의 문제 : 재인식 대(對) 기호해독」,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1997.
- , 『차이와 반복』, 문학과지성사, 2000.
- G. Deleuze, 김종호 역, 『대담』, 숲, 1993.
- ,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 , 서동욱·이충민 역, 『프루스트와 기호들』, 민음사, 1997.
- G. Deleuze & P. Guattari,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P. A. Pearson, *The Germinal life of the event—Difference and Repetition*,

Routledge, 1999.

P. Patton, "Introduction", *Deleuze : A Critical Reader*, ed. by P. Patton, Blackwell, 1996.

R. Bogue, 이정우 역, 『들뢰즈와 가타리』, 새길, 1995.

—————, Word, Image and Sound—The non-representational semiotics of Gilles Deleuze, *DELEUZE AND GUATTARI* vol. 1, ed. by G. Genosko, Routledge.

R. Gasche, *The Tain in the Mirror-Derrida and the Philosophy of Reflection*, Harvard Univ. Press., 1986.